

문·안 접장은 TV토론... 반전은 없었다

박, 의원직 사퇴 배수진

정치·복지·안보 등 100분간 신경전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날선 대립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2012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는 지난 6일 두 후보가 최초로 단독 회동을 했던 장소다.

이날 밤 10시45분 서울시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 토론회장에 문 후보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안 후보도 2분 뒤 도착했다. 두 후보 모두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현장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두 후보는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듯 비장한 모습이였다. 30분 뒤 토론이 시작됐다.

사회자가 "룰 협상 타결 안 됐죠"라고 두 후보에게 묻자, 두 후보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각자 모두발언을 한 뒤 수도권 토론과 자유토론에 들어갔다. 수도권 토론과 자유토론에선 두 후보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던 시절 법인세 인하 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집권 엘리트와 경제관료, 삼성그룹의 결합이 이뤄져 개혁 과제가 늦춰졌다. 같은 인력 풀에서 경제민주화가 잘 이뤄질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한계였다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였다"고 답했다.

양측은 반값등록금과 의료비상한제 등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안 후보가 "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 재임 때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하고 사립대까지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등록금)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면서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는 내년 실시하고 그 다음해 사립대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임기 중 단계적 실현하겠다는데 너무 느리지 않나"고 맞받아쳤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민주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문제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공약을 거론한 뒤 "정치를 축소하거나 위축하는 게 새정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두 후보가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에 국회의원 정수조정 등



토론이 끝난 후에...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아권 단일화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회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왼쪽),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이 포함한 사실을 언급하고 "같은 의견이 더 많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사회자가 '상대 후보를 칭찬해보라'는 요청에 문 후보는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나 진심은 믿지만

그게 협상에서는 잘 반영이 안 돼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청년 일자리 공약이 좋았다. 단일후보가 되면 청년고용의무화당제, 고용분담

금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싶다"고 했다.

양측은 이날 정치·복지·노동·외교 안보 등 각 정책분야의 쟁점사항을 놓고 100분간 설전을 벌였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수도권 표심 잡기... 보수결집으로 단일화 맞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2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수도권 시장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아권 후보단일화 협상에 대해 "정치 세신이 아니라 정치 후퇴"라고 비판하며 단일화 바람 차단에 나섰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라며 "대의보다는 누가 더 유리한가 하는 권력게임일 뿐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일화에 매몰되다 보니 정책과 인물검증이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대선이 27일 남았는데 아직도 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누가 더 쉬운 상대인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넘어갔으나 "좋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요즘 많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 고양시 능곡시장과 의정부 제일시장을 잇따라 방문,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그는 능곡시장에서 노점 떡집을 지나다가 잠시 여러 차례 직접 떡매질을 해보기도 했으며 과자노점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를 봉지에 담아 판매

를 하기도 했다. 또 한파를 판매하는 노점에서 위생장갑을 끼고, 한파에 물엿을 입히고 뒤통을 버무리는 작업도 했다.

박 후보가 수도권 시장을 찾은 것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27일 동대문 소림물 심야방문을 제외하고는 4·11총선 지인유세 후 처음이다. 자신의 취약지인 수도권 공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주변은 받아들이고 있다. 박빙 대선전에 대비해 주력해온 보수층 결집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고 최대 표밭인 수도권으로 "기수"를 돌렸다는 것이다.

고양과 의정부의 지난 4·11총선에서 5%포인트 미만을 얻은 승패가 결정됐던 초경합지였다. 박 후보는 앞으로 여당의 안정 지역보다는 이런 곳부터 파고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이는 특히 수도권에서 위력이 예상되는 아권 후보단일화 바람을 차단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까지는 비례대표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측 인사들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르면 후보등록 첫날인 오는 25일, 늦어도 마감일인 26일 비례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실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쇄신특위, 풀리페서 의원 교수직 사직 의무화

국회쇄신특위는 22일 대통령실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도록 하는 등 국회쇄신을 위한 4개 항목을 의결했다.

의결 사항 중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엔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처장(2인), 청장(미실시 14인),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위는 특히 국회의원의 결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의결하면서 국회의원은 의원직 외에 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교수를 겸한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영리업

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결직 여부도 여야 이견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라도 의원 재직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이상인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위는 소수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남은 해신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측 "국정 비전 안정감 있게 제시"

안측 "朴 이길 후보 누군지 보여줘"

새누리 "밋밋했다" 혹평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에 대해 문, 안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평가는 엇갈렸다.

토론 당사자였던 두 후보 측은 모두 안정감 있게 토론을 이끌었다고 자평했으나 박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경륜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평가절하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2일 영등포 캠프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왜 꾸준히 상승해 왔는지

유감없이 보여주는 토론이었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전을 정말 책임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경륜, 의지까지도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 "국정경험이 바탕이 돼 비전과 정책의 총론뿐 아니라 각론에서도 강하고 치밀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측 유인영 대변인은 TV토론이 열린 백범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누가 새누리당 박 후보를 이길 후보인지를 분명히 했

다"면서 "신뢰와 믿음, 진정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을 했으며 국가적,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의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도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구체적인 폭넓은 전문성, 인식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영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토론은 밋밋하고 답답했다"며 "상식적인 예기와 모호한 질문·응답이 오갔을 뿐 아직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들이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의 의원 정수와 관련해 다른 소리를 하는 모습은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안 TV 토론 시청률 18.8%

광주는 22.1%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TV 토론 시청률이 18.8%로 집계됐다.

22일 시청률 조사업체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날 밤 11시15분부터 동시 생중계한 '2012 후보단일화 토론회'는 전국 기준 18.8%, 수도권 기준 20.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은 KBS 1TV가 9.4%로 가장 높았고, SBS 5.0%, MBC 4.4%였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KBS 1TV 9.4%, SBS 5.8%, MBC 5.2%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4.0%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22.1%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19.7%, 대구·구미는 12.5%였다. 분 단위로 최고 시청률은 밤 11시30분께 기록한 22.5%였다.

연령층별 시청점유율은 여자 50대가 가장 높았다. 여자 50대의 시청점유율은 14.26%였고, 남자 60대 이상 13.08%, 여자 40대 13.5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청률조사업체 TNmS 기준으로도 후보단일화 토론회 시청률은 전국 18.7%, 수도권 19.7%였다. 전국 기준으로 KBS 1TV 8.1%, MBC 6.0%, SBS 4.6% 순으로 집계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철·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1.수기동 제일오피스텔 9층 14평
2.경매개시 결정 전 물건
3.주거/사무실 겸용,대형주차장
4.현 보3백만원에 월 30만원에 임대중/즉시입주가능
5.용자 2000만원정도 가능
6.급매 2500만원(일시불) 시세 4000만원 정도
경매 낙찰도 2512만원에 됨

사정상·급매
문의 : 010-3605-5000

1.신안동 제일오피스텔 2층 50평
2.사무실 전용,코너,대형 주차장
3.현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중/즉시입주가능
4.용자 5000만원 정도 가능
5.급매 8500만원(일시불) 시세 1억1000만원 정도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